

대중문화예술분야

# 성폭력 대응 매뉴얼

comic  
만화



대중문화예술분야

# 성폭력 대응 매뉴얼

comic  
만화



# 성폭력 대응 매뉴얼

## comic 만화

I. 성폭력이 무엇인가요?	4
II. 만화 분야 성폭력 현황이 어떠할까요?	11
III. 만화 분야 성폭력 피해, 무엇이 고민인가요?	16
IV. 성폭력 피해, 대처방법은 무엇인가요?	27
V. 성폭력 예방과 대책,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41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45

# I. 성폭력이 무엇인가요?

## ① 성폭력의 개념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성적 언동으로 상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상대에게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동의를 구하지 않은 신체적 접촉은 물론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유포, 유포 협박, 저장, 전시하거나 디지털 공간, 미디어, SNS 등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의 디지털 성폭력도 포함됩니다<sup>1)</sup>.

<sup>1)</sup> 여성가족부, 2018,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 pp. 13-15.

## 문화예술 분야 일면



▷ 예술적 행위 및 업무와 개인의 성적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 소속사에서 체형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신체특징과 관련된 표현이나 신체접촉이 발생하는 경우 등
- 의상 피팅을 이유로 모델에게 신체접촉을 하는 경우 등

▷ 어릴적부터 관련 직종의 교육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재능뿐 아니라 오랜 시간 기량을 닦아야 되는 경우 등
- 음악, 미술 등 어렸을 때부터 학습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연예인의 경우도 청소년 연습생으로 시작하는 경우 등

▷ 안정적 일자리가 제한적이고, 일이 인맥 위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대형 음반 유통업자는 소수이고, 이들과의 회식 등을 거절할 경우 음반발매를 위한 기회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
- 모델들이 활동할 수 있는 패션쇼가 그리 많지 않으며, 디자이너와의 관계가 좋지 않을 경우 무대에서의 기회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

▷ 해당 분야에서 인정받는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서 인정받는 소수가 각종 시상식이나 오디션, 패션쇼 모델선발의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게 되며, 이들에게 가수나 모델을 선발하는 권한이 주어지는 경우 등
- 해당분야에서 인정받는 소수가 문학지나 만화잡지의 편집위원이나 자문위원 활동하면서 신예 만화가의 작품을 심사하는 경우 등

▷ 일대일, 혹은 일대 소수의 도제식 교육이나 업무가 있습니다.

- 작곡가와 가수, 만화작가와 어시스턴트, 디자이너와 모델, 작가와 피디 등 일대일 혹은 일대 소수와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

## 문화예술 분야 성폭력 특성



문화예술 분야의 일면으로 인해 성폭력이 야기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될 수 있고,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권력적 위계구조 하에서 피해자의 적극적 대처를 어렵게 합니다. 따라서 성인지 감수성이 특히 요구됩니다.

▷ ‘예술가가 되려면 성적으로 탈선해 봐야 한다’ 등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성희롱이 이루어지기도 했으며, 영화촬영 현장에서 사전협의한 내용과 다르게 성폭행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오랜 시간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도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것이 어려우며, 부당한 일을 당해도 참고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문화예술 분야는 일자리가 제한적이고, 프리랜서 형태로 고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성추행이나 성폭력 사건을 겪어도 경제적 여건이 불안하여 소송을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권력은 고용관계로 정형화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의 영향력이 경력, 인맥을 통해 모호하고 광범위하여 성폭력 가해자들 안에서의 성폭력을 정당화하고 옹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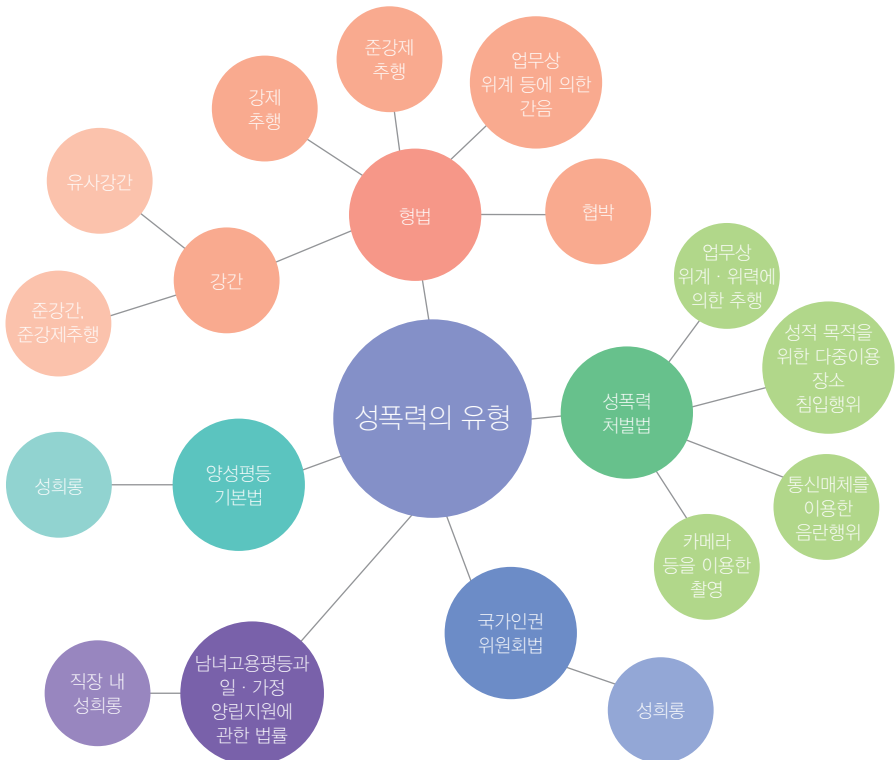
▷ 일대일, 일대 소수의 도제식 교육으로 인해 일신전속적 관계 하에서 상급자에게 더 종속되므로 상급자의 지시 및 명령을 하급자가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 성인지 감수성 : 여성과 남성의 사회문적 차이로 인한 삶의 현실을 이해하고, 그로부터 비롯되는 요구의 차이를 인식하며, 성별 불평등에 대한 민감성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관심과 태도를 의미합니다<sup>2)</sup>.

<sup>2)</sup> 조혜련, 2017, 성인지 감수성의 이해, p. 16.

## 2 성폭력의 유형

성폭력은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유형(적용법조)

## 행위

강간(형법 제297조 등)

➔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간음(성기삽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폭행 또는 협박은 주먹 등으로 때리거나 흉기로 위협을 한 일이 없더라도 피해자를 밀치거나 꼼짝 못하게 누르는 행위, 원력으로 옷을 벗기는 행위, 반항하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는 것 등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형법 제297조의2 등)

➔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말합니다.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등)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에게 대하여 추행하는 행위

폭행하는 행위 자체가 추행하는 행위인 경우도 포함하며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준강간,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등)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과 형벌이  
동일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이 없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행위를 말합니다.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는 술이나 잠, 약물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형법 제303조제1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성폭력처벌법 제12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성희롱(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 성희롱을 차별행위로 보고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와 구제를 실시  
합니다.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성희롱(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각급 학교 및 공직 유관 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입니다.

※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입니다.

구체적 성희롱의 사례

➔ 법원 판례 및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예시

※ 허리에 손 두르기과 함께 손으로 엉덩이를 톡톡 치는 행위, 테이블 아래에서 발로 다리를 건드리는 행위 등은 육체적 성희롱입니다.

※ “술집여자같이 그런 옷차림이 뭐야?,” “OO씨가 부장님 술 좀 따라 드려” 등은 언어적 성희롱입니다.

※ 성기 모양으로 조각한 당근을 개수대에 담가놓은 행위, 컴퓨터 모니터로 야한 사진을 보여주거나 바탕화면, 스크린세이버로 깔아놓는 행위 등은 시각적 성희롱입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촬영/유포(재유포)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 등을 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촬영 당시에는 동의했으나 사후에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하는 것도 처벌됩니다).

※ 직장 내 탈의 시에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 성행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동의하에 촬영한 성적인 영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동의 없이 촬영한 성적인 영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협박(형법283조) : 유포협박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성행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 연인 간 이별 시 또는 이별 후 다른 연인을 만날 때, 혹은 다른 연인과 결별 후 협박,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행위 촬영물을 주고받은 후 다른 촬영물을 보내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사이버성폭력 촬영물의 유포방조 및 협력 (정보통신망법42조, 제44조의 7, 전기통신사업법)

영리를 목적으로 사이버 성폭력 촬영물의 유포 방조 및 협력하는 등 행위 (인터넷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적용)를 의미합니다.

### 3 2차 피해

2차 피해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조직 또는 주변인이나 행위자가 업무와 관련된 불이익을 주거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소문, 피해자에 대한 배척, 행위자에 대한 옹호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자는 주변의 시선이나 소문, 성폭력 사건 조사과정에서 부적절한 질문이나 태도 등에 의해서도 심리적 괴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떠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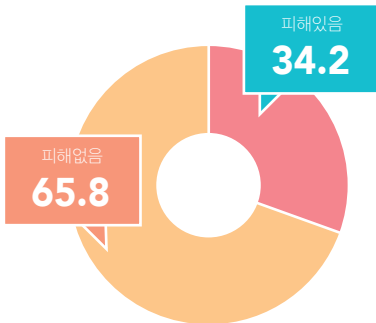
II. 만화 분야 성폭력 현황이

여성의 2명중 1명은  
성폭력 피해 경험 있어

성폭력 피해 **34.2**

### 성폭력 피해

만화 분야 종사자는 약 34.2%가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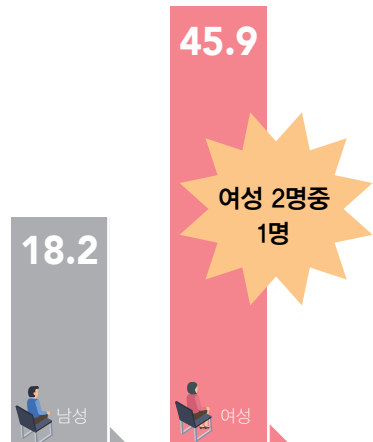


여성 성폭력 피해 **45.9**

### 성별 성폭력 피해율

그리고 여성 피해자는 45.9%로 만화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의 약 2명 중 1명은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특히 여성의 성폭력 피해가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만화 분야 종사자 중 남성의 성폭력 피해율 역시 18.2%로 그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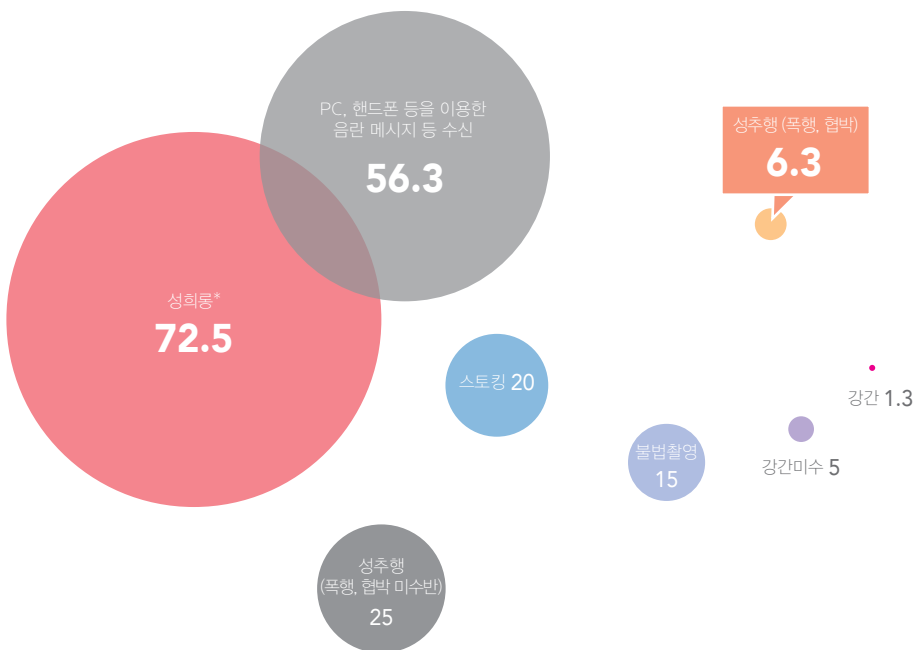


## 성폭력 유형 중 성희롱 비율 72.5%로 가장 높아

성희롱 피해 **72.5**

### 성폭력 유형별 피해실태(중복응답)

만화 분야 종사자들의 성폭력 피해유형을 조사한 PC, 핸드폰 등을 이용한 음란메시지 등 피해 비율 결과, 성폭력 피해 유형은 다양하지만 이 중에서도 56.3%로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 성희롱 피해가 72.5%로 가장 높고,



\*성희롱 :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없이 말이나 몸짓으로 상대방을 성적으로 괴롭히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

## 성폭력 피해에 대응하여 ‘피해라고 인지하지 못했다’는 비율 19.0%로 높아

가해자에게  
거부의사를 표현 했다

**27.8**

참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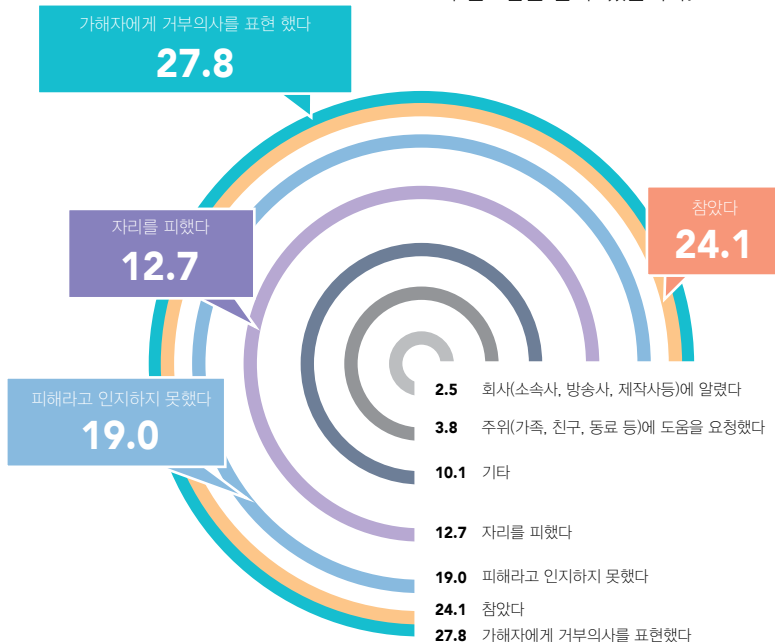
**24.1**

### 성폭력 피해 대응

만화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성폭력 피해 후 피해자들은 ‘가해자에게 거부의사  
를 표현했다’는 응답이 27.8%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나 ‘참았다’는 응답은 24.1%, ‘자리를 피했다.’  
라는 응답도 12.7%로 나타나 적극적으로 대처하  
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만화분야의 경우 성폭력 당시 ‘피해라고 인지  
하지 못했다’는 응답도 19.0%로 나타나 인식교육  
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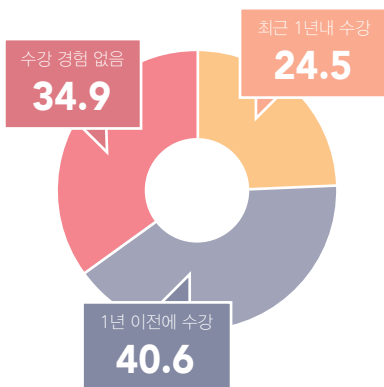


최근 1년간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24.5%에 불과

1년 내 이수율 **24.5**

### 성폭력 예방교육 수강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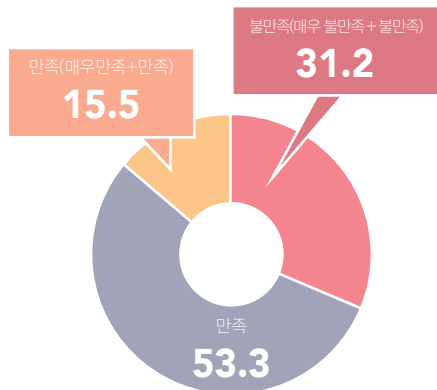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성폭력 유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성폭력 예방을 위한 대처방법을 제공하는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해서 만화 분야 종사자들은 지난 1년 내 이수율이 24.5%에 불과하고,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없는 경우도 34.9%로 높았습니다. 성폭력 예방교육이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폭력 예방교육 "만족" 비율 **15.5**

### 성폭력 예방교육 만족도

성폭력 예방 교육에 대해서 수강경험이 있는 만화 분야의 종사자들은 약 15.5%가 만족하여 그 비율이 낮았습니다. 지속적으로 만족도 높은 성폭력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화분야 종사자에게 적합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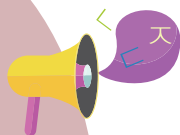


# Ⅲ.

## 만화 분야 성폭력 피해, 무엇이 고민인가요?

### Q1

**제 외모를 가지고 비하하고,  
힘들어서 일을 그만두려 하자  
앞길을 막겠다고 협박합니다.**



유명 만화작가의 어시스턴트로 일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외모나 신체에 자신감이 부족하고, 주눅이 든 상황이었는데, 작가님은 그것을 가지고 저를 비하하였습니다. 어쩌다 화실에서 넘어지면 “넌 궁둥이가 커서 관심을 거야. 크고 폭신하잖아”라며 비웃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작가님을 포함하여 여러 명의 어시스턴트와 함께 간 화실 근처의 음식점에서는 간판의 돼지그림을 가리키며 “저건 널 닮았다”며 웃음거리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일이 계속되어 화실을 그만두려하자 “너 같은 것을 누가 써줄 것 같으냐”, “데뷔 못하게 막아버리겠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신공격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 까요?

※ 제시된 일부 사례는 한국만화가협회 「만화가를 위한, 그러나 만화가에 의한 불공정 노동행위 및 성폭력 사례집」에서 인용하였습니다.



## A ①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상담전문가** 매우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외모에 대해 그런 비하적 발언을 듣는다면 마음도 힘들고 일도 하기 싫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유명 작가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외모비하를 하여 인권침해를 했을 뿐만 아니라 만화계에서 상담하시는 분의 미래를 가지고 협박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그대로 둔다면 실제로 만화계에서 가해자의 권력으로 2차적인 피해까지 이어질 것임으로 구체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별행위 및 성희롱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전문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위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만화작가가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고용노동부에 성희롱으로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회식자리에서 매뉴판의 돼지그림을 가리키며 “저건 널 닮았다”며 공개적으로 신체적 특징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다면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화작가에게 그와 같은 언행이 성희롱 내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 재발방지를 약속받고 그 이후에도 만화작가의 행동이 반복된다면 적극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Q 2

## 만화작가가 들어 있는 공간에서 성추행을 할까봐 두렵습니다.



만화작가의 화실에 어시스턴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만화작가와 저녁을 먹고 화실로 들어가는 길에 그 작가가 외진 골목으로 운전을 하면서 계속 “으속하다”, “여기 우리 단 둘 뿐이다” 등으로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문득 산 쪽으로 방향을 바꾸며 제게 “널 어떻게 할까? 여긴 외져서 뭘 일이 나도 아무도 모를걸?”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 항의하자 농담이라고 했지만 그 이후로 작가와 있을 때는 항상 신경이 쓰이고 힘듭니다.



## A 2 일상생활에서 강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만약에 사건이 발생하면 고소 고발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담전문가** 정말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상담하시는 분을 불안하게 하는 이런 행동과 말은 구체적이고 실행에 의지가 담겨있는 듯 하여 더욱 위험해 보입니다. 강하게 항의하신 일은 매우 훌륭하게 잘 대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폭력 가해자들은 가해행위를 계획할 때 자신의 안전을 가장 먼저 고려합니다. 그래서 실제와 상관없이 ‘약해보이는’ 피해자를 골라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때문에 강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항의하는 것은 나의 강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만약에 사건이 발생하면 고소 고발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건 대응 대책을 검색하거나 내용을 프린터해서 보이는 곳에 두는 등의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개인이 대응을 하도록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미봉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만화계도 직장내성희롱과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제도가 생기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겠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 만화계는 물론이고 관련기관과 정부 부처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전문가

작가의 “널 어떻게 할까? 여긴 외져서 뭘 일이 나도 아무도 모를걸?”이라고 말한 것은 음란한 농담 혹은 성적 관계를 요구하는 행위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형법상 처벌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귀하가 항의하면서 하차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차를 거부한 채 계속 운전하였다면 형법상 감금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성희롱에 대한 위 설명을 참조하여 작가로부터 성희롱이나 강제추행 등을 당하였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Q 3

### 성추행 고소이후에도 피해자가 수치스러운 감정을 느껴야 하는 것이 괴롭습니다.



만화가 선생님께서로부터 부부관계를 질문 받는 등 성희롱을 당하고, 허리를 잡히는 등의 성추행을 당하여 화가 나고 불쾌해서 고소를 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도움도 받았지만 재판과정에서 마치 피해자인 제가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저는 수치스러웠습니다.”라는 표현을 써야 되었습니다. 제가 왜 수치스러워야 하는 지, 수치스러운 짓은 가해자인 만화가가 했는데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만화 강의를 하고, 계속 문화생을 받고 그래서 성추행이 자행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고소를 했지만 저는 소송과정에서 내가 수치심을 느끼도록 강요당한다는 생각에 힘들었습니다. 전 그러한 행동을 한 가해자에게 불쾌했고, 화가 났고, 이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고, 그 사람이 수치심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고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가해자들은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해서 제가 법률적으로 대응한다면 또 이러한 과정을 반복해야 되나요? 저는 수치심을 강요받아야 할까요?



### A 4 성희롱에 대해 가해자가 수치심을 느껴야 하며,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상담전문가

사적인 이야기는 평가나 비난을 하지 않는 신뢰감 있는 대상과, 신뢰감 있고 안전한 환경에서 이야기하게 되는 주제인데요, 그런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성

적인 이야기를 하고, 묻는 행위는 성희롱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가해자의 불쾌한 성적 행위들을 더 이상 참지 않고 신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불합리 한 것에 대한 의사표현, 사회 변화를 위한 내적 에너지가 있는 사람으로 보여서 지지와 격려를 보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수치심은 스스로를 부끄러워 느끼는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수치심은 가해자가 느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행위에 대한 불쾌함, 화남 등 이러한 감정이 지속되어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주는 심리적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다면, 고소 이후 피해자가 갖는 후유증은 지속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 드리자면 불쾌한 감정을 완화할 수 있는 위안이 되는 말을 자신에게 하는 것 또한 불쾌한 기분을 일시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법률전문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대법원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역시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는 사실상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 지만을 강제추행의 성립요건인 것처럼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강제추행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라는 진술이나 표현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판시한 바와 같이 추행은 성적 수치심뿐만 아니라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역시 추행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이 아닌 혐오감(또는 불쾌함)을 느꼈어도 추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와 같이 강제추행의 수사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수치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사람들을 볼 낮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 또는 그런 일)이라는 표현을 강요당하였다면 귀하와 같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앞서 언급한 추행의 의미를 상기하여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혐오감(혐오는 사전적 의미는 싫어하고 꺼림)을 느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 역시 강제추행죄에 있어 추행의 개념을 명확히 인식하여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혐오감을 느낀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므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강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Q 4

## 성폭력 피해 고백 후 2차피해로 괴롭습니다.



유명 만화가에게 성추행 피해를 경험했고, 이를 고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노출 되었고요...가해자는 제가 성추행 피해를 알리자 바로 사과문을 게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 진행과정에서 그리고 이러한 피해가 공론화되면서 저는 해당 가해자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서 댓글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꽃뱀이다’, ‘관종이다’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그리고 제 작품을 폄하하면서 이런 작품을 쓰는 작가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 자가 무슨 피해자냐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도대체 피해자다움이 무엇 인지...저는 상담치료도 받고 했지만 순간적으로 도움이 되었을 뿐 지속적으로 댓글들이 올라오니 힘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추행 피해자들이 자신을 일을 공론화하면 이러한 2차 피해를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 A 4 마음의 상처를 덜어줄 수 있는 사람과 계속 상담을 해서 두려움과 마음의 상처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상담전문가** 귀하는 유명 만화가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경험했고, 그리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도 전에 언론에 노출되어서,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이 급박하게 진행되다 보니 심리적 압박감이 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1차 가해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직접적인 가해라고 하면 '2차 가해'는 성폭력사건을 둘러싼 사회적 시선이나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로 인해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 성폭력 피해 혹은 피해자에 대한 성인지감수성이 낮아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이 겪는 후유증의 심각성을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꽃뱀이다’ ‘관종이다’ 등 피해자에 대한 악성 댓글로 2차 가해를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의도를 의심하고, 피해자의 느낌과 피해를 폄하하고, 피해자의 대처방식을 질책하고, 행위자를 용서할 것을 종용하는 질문과 조사 방식(피해자 조사 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수사단계, 재판단계에서 2차, 3차 가해행위를 하는 실정입니다.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

고 당사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성폭력 그 자체를 거쳐 살아왔다는 사실을 상기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고난을 뚫고 살아남은 것입니다. 성폭력에서 살아남은 자라면 자신이 힘을 가졌다는 것을 아는 사실입니다. 또 무엇이 치유에 필요한지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힘은 치유라는 목적지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는 연속적인 과정입니다. 피해 이후 누구와 가장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까? 친구, 부모, 전문상담원, 누구든지 좋으니 사건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자꾸만 추행의 장면이 떠오르면 불안과 공포에 싸이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의 상처를 덜어줄 수 있는 사람과 계속 상담을 해서 두려움과 마음의 상처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로부터 벗어나 치유의 단계까지 나아가기에는 상담자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피해자의 의지도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치유의 단계에 접어들 즈음 스스로 하던 일을 계속하시면 좋겠습니다.



#### 법률전문가

성폭력범죄에 있어서는 가해자에 의한 1차 피해뿐만 아니라 가해자나 주변 사람들을 통한 2차 피해가 큰 문제가 되며 최근 들어 법원 역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비공개로 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와 같이 가해자나 피해자가 문화계, 공연계 등에 종사하여 대중에서 알려진 경우에는 각종 통신매체의 발전으로 인하여 악의적인 댓글로 2차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와 같은 악의적인 댓글을 쓴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악의적인 댓글을 통신매체에 올린 가해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형사소송과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책임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 Q 5

**성추행을 당해 괴롭고,  
이를 말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  
괴롭기만 합니다.**



유명만화가의 화실에서 어시스턴트로 일을 하였습니다. 마감이 있는 날은 밤샘작업도 많고, 만화가와 돌이서만 작업을 하는 시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만화가가 저에게 본인이 아주 힘들다면서 동정심을 유발하는 사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손부터 시작해서 제 몸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불쾌했지만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고, 다른 어시스턴트나 문하생이 있는 자리에서도 계속 “누구는 가슴이 커, 재는 가슴이 작아...” 이런 말들을 수시로 하였습니다. 정말 답답한데, 이를 말해도 나만 그냥 피해를 당한 사람으로 일 자리를 잃을 것만 같습니다. 그 만화가는 워낙 인지도도 있어서 큰 타격을 받지 않고, 덮일 것 같아 막막하기만 합니다.



**A 5 상담센터나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전문가** 만화가의 어시스턴트로 일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단 한 번의 경계도 지켜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공분하게 됩니다. 만화가의 언어적 성희롱 행위에 ‘너무 불쾌하고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낙담하셨을 겁니다.

현실에서 직장 내 성희롱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몰라서, 또는 행위자가 고위직급이거나 피해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등 피해자보다 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조건이어서, 또는 2차 피해 발생을 우려하여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그 행위가 성적 굴욕감 등을 느끼게 하는 원치 않는 행위인지 여부는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현했는지 보다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 행위가 발생한 상황적 맥락과 경위, 그 행위의 정도나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았을 때 원치 않는 행위인지를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폭력은 피해자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그만두라



고 거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폭력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전적으로 성폭력 가해자가 멈출 준비가 되어야 멈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귀하는 현재 상황에서 피해를 겪은 사람으로 일자리를 잃을 것만 같은 불안함과 가해자인 만 화가는 인지도도 있어서 타격을 받지 않고 덮일 것 같아 막막함 때문에 매우 혼란스러운 심정 일 것으로 이해됩니다. 감정은 느껴지고 표현되기를 요구하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표현할 수 없다면, 그리고 감정을 유발한 상대방에게 표출할 수 없거나 표출하기 위험하다면,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대가 그러한 행동을 하면 자신의 의사 표현을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혼자 고민하기 보다는 상담센터와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볼 것을 권합니다.



#### 법률전문가

귀하와 같이 강제추행 등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사고소와 같은 법적 대응방식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여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6항에서 ‘검사는 (모든 성폭력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 성범죄 피해를 당한 아동, 청소년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주는 법률조력인 제도를 최초로 시행하였고 2013년부터는 지원 대상을 모든 성폭력 피해자로 확대되었으며 그 명칭도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변경되었습니다.)

귀하와 같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성폭력 피해사실신고와 함께 구두 또는 서면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요청을 할 수 있으며 상담센터 또는 지원센터 등을 통해서도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와 같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분들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위와 같은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성폭력상담소 또는 지원센터 등의 도움을 받아 증거수집,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에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 Q 6

###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미투(me too) 이후로 많이 즐기는 했지만 여전히 회식 자리에서 터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자리 같은 데서 회식을 하게 되면 작가선생님들이 있으면 문화생들이 빨리 나가 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앉아서 회식을 하게 되면 취기가 오 르고, 허벅지를 만지거나 어깨에 팔을 얹고 만집니다. 물론 요즘은 동료들이 서로 도와주 거나 빼주고 막아주는 분위기이고, 그냥 저쪽 옆자리는 가지 마라 하지만 그 정도입니다. 여기에서 정색하거나 하면 나 때문에 분위기가 망가지고, 나 혼자 튀는 거 같고, 모두 피 해 보는 느낌이 두렵기도 합니다. 회식을 매번 나가지 않을 수도 없고, 매번은 아니지만, 회 식 때의 이런 느낌을 내가 경험하거나 당하는 다른 사람을 보는 것도 힘이 들기는 합니다. 선배들에게 이야기하면 나서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나서고 싶지는 않습니다.



## A 6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변인들이 상황을 목격하도록 하세요.

**상담전문가** 미투(me too) 이후로 회식이 많이 줄었다는 것을 체감하시는군요.

귀하가 소속된 단체에서 건전하지 않은 ‘회식이 줄었다’는 것은 조직 차원에서도 미투에 대 한 감각이 있어 보입니다. ‘동료들이 서로 도와주거나 빼주고 막아주는 분위기’라면, 구성원들 도 각자 최선을 다해 위드유(with you)를 실천하려는 의지와 바람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는 고민상담을 하기 전까지 귀하는 스스로 잘해 오셨던 방식이 있습니다.

미투와 위드유 사회적 운동 실천의 기본은 ‘말하기’입니다. ‘말하기를 멈추지 않을 때 우리가 원하는 변화가 이뤄진다는 취지입니다. 귀하는 이미 선배들에게 말하기를 실천하셨습니다.

귀하가 말했기 때문에 ‘요즘은 동료들이 서로 도와주거나 빼주고 막아주는 분위기이고, 그냥 저쪽 옆자리는 가지 마라 한다’는 시도들을 보여줍니다.

회식 장소에서 겪는 고충을 공유함으로써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목격했 을 때 불편감을 느끼고, 이렇게 폭로할 기회가 왔을 때 내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고, ‘도와 주고 빼주고 막아주는’ 방어 행동을 여러 사람이 반복하면 작가선생님들도 인식하게 됩니다.

인식한 후 행동이 중단된다면 좋은 일입니다. 중단되지 않는다면 동료들이 공유하며 다졌던  
의식들은 여러분들에게 부당한 행위에 대한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합니다.



**법률전문가**

부적절한(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적 접촉은 법률적으로 강제추행  
(형법상 강제추행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에 해당합니다. 강제추행을 실제로 신고하여 수사를 통해 밝히는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목격자나 CCTV 영상과 같은 증거의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이 있는 당시에 단호하게 상대방에게 지적하고 주변인들이  
모두 당시 상황을 목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IV. 성폭력 피해, 대처방법이 무엇인가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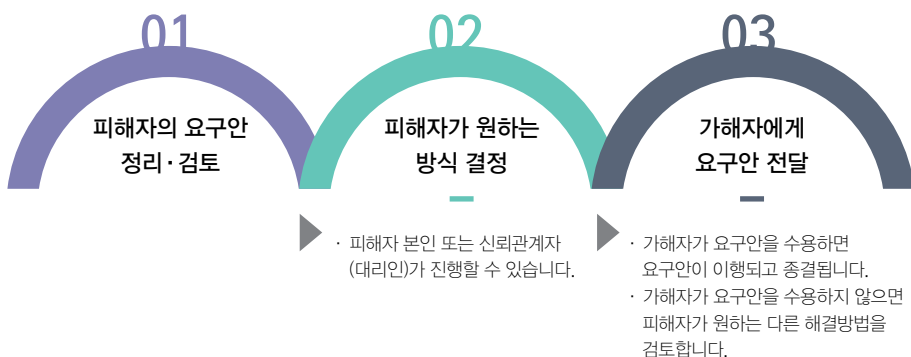
성폭력 피해를 봤다면 피해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양한 사건 해결의 방법이 있습니다. 각 방법에 따른 장점과 단점을 검토하여 사건 해결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심리적 지지, 법·의료적 지원, 가해자 처벌, 심리상담, 공론화, 소속공간의 문화 바꾸기 등 다양할 수 있으며, 제시된 방법 이외에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sup>3)</sup>.

---

<sup>3)</sup> 서울특별시, 한국성폭력상담소, 2017,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pp. 60-66.

# 1

## 가해자와의 개인적 해결



### 장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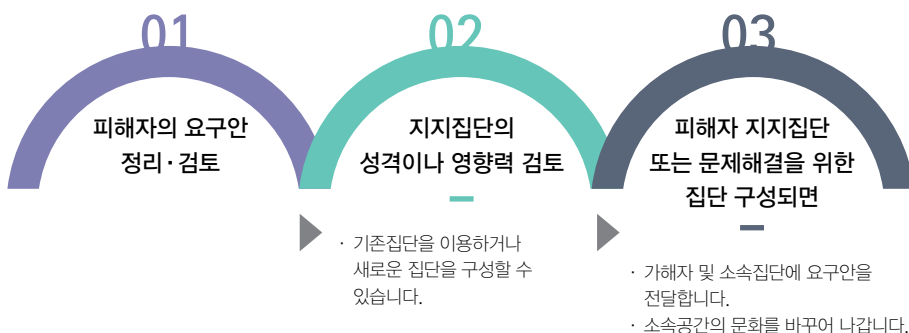
- ① 공론화가 가져올 수 있는 피해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음
- ② 비교적 빠른 시간내에 사건종결 가능
- ③ 요구안의 내용을 피해자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 다양하게 구성 가능

### 단점

- ① 피해자의 대리인이 중재할 경우 1:1로 요구할 때 보다 가해자가 가해 사실을 부인할 가능성 있음
- ② 제3자의 의견이나 감정이 피해자 보다 우선시되거나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③ 가해자가 요구안을 받아들이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음

## 2

# 소속공간에서의 집단적 해결 (여직원회, 비상대책위원회 등)



### 장점

- ① 피해자가 소속공간에서 공식적이거나 공개적인 해결을 원할 때 사용 가능
- ② 가해자와의 개인적 해결에 비해 가해자에 대한 압력을 좀 더 힘있게 해결할 수 있음
- ③ 소속공간(집단)의 문화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함께 할 수 있음
- ④ 성폭력을 방조하거나 묵인한 주변인들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 가능
- ⑤ 요구안의 내용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음

### 단점

- ① '공신력', '중립성' 등에 대한 담론싸움이 불거져 사건 해결 과정이 지연되고 어려워질 가능성 있음
- ② 소속집단 내의 다른 갈등이나 문제와 연루되어 성폭력 사건의 본질이 흐도될 수 있음
- ③ 가해자가 소속공간(집단)을 나가버릴 경우 다른 조치를 마련하기 어려움
- ④ 가해자의 지위가 높은 경우 강력한 조치가 어려울 수 있음

### 3

## 소속공간 안에서의 제도적 해결방법 (사규, 학칙, 협회 회칙 등)



#### 장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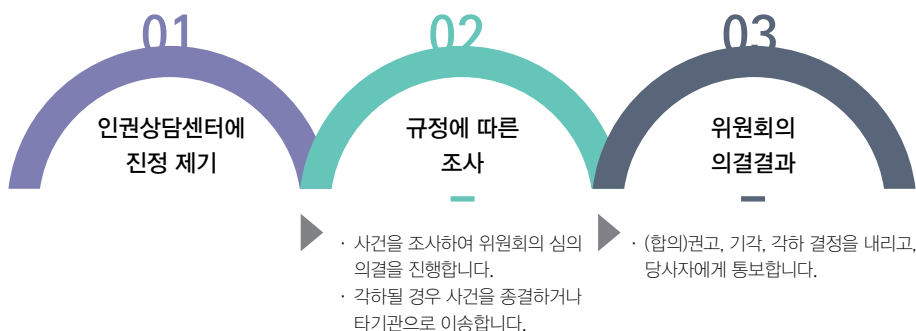
- ① 가해자와의 개인적 해결에 비해 가해자에 대한 압력을 좀 더 힘있게 해결할 수 있음
- ② 형사상 처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퇴사', '퇴학' 등과 같은 징계를 활용할 수 있음

#### 단점

- ① 가해자가 소속공간(집단)을 나가버릴 경우 다른 조치를 마련하기 어려움
- ② 가해자의 지위가 높을 때,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음

# 4

##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해결



### 장점

- ① 기존 법체계에서 다루기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성적 연동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결정 대상이 될 수 있음
- ② 국가권력에 의한 2차 피해가 있을 경우에도 이를 진정할 수 있음

### 단점

- ① 권고에 대한 법적 강제력이 없음
- ②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 등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진정이 각하됨



# 5

## 사법적 해결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 형사소송

01

성폭력 발생 시 수사기관에 가해자를 고소하고 수사단계를 거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법원에 요구하는 과정

### 민사소송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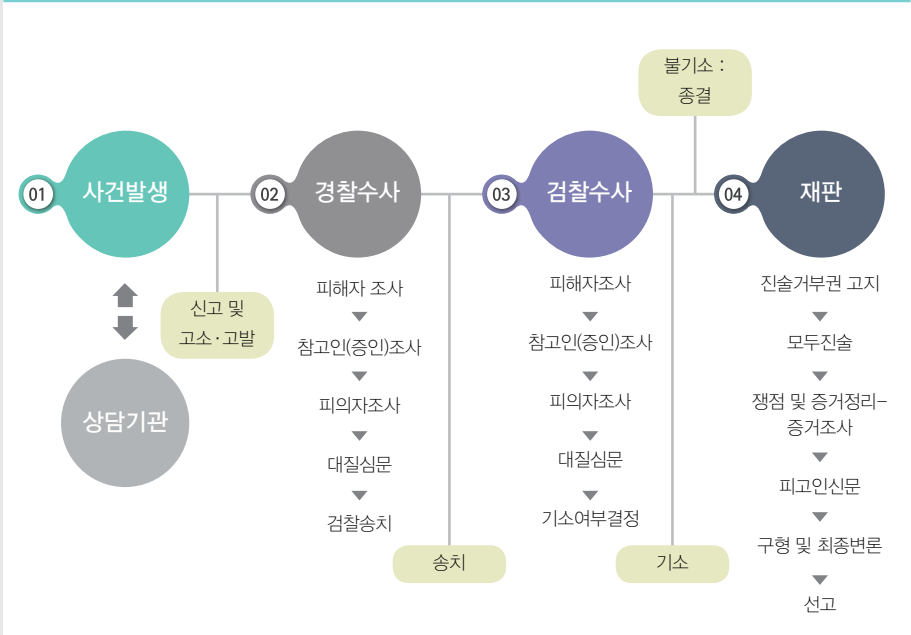
성폭력범죄로 인한 재산상 피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가해자에게 금전적으로 배상받는 절차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과정

※ 민·형사 대응외에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신청 등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 사건 형사소송절차

성폭력은 범죄행위에 따라 법률상 개별 죄목으로 다루어지며,  
일반적인 성폭력 사건의 형사소송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점

- ① 법적 강제력이 있으며, 가해자에게 강력한 위협이 될 수 있음
- ② 성폭력 피해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주는 안도감이 크고, 이후 소송공간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긍정적 영향력 미칠 수 있음
- ③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음
- ④ 성폭력을 사회적 범죄로 인식시키고, 가해자를 제재하는 효과가 있음

### 단점

- ①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성폭력 범위가 제한적임
- ② 사건 해결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며, 피해자의 의사 변화와 상관없이 사건이 계속 진행될 수 있음
- ③ 소송에서 지거나 가해자의 유죄가 인정되지 않을 때 피해자의 좌절감과 위험부담(무고피소)이 커질 수 있음
- ④ 법적으로 피해를 입증하는 데 부담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 사건발생

### 1) 신고

경찰, 검찰, 성폭력 관련 상담기관 등에 성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의무자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시설의 책임자 등은 성폭력 사실을 안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 19세 미만의 미성년자(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미성년자는 제외함)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지원을 받는 사람이 성폭력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2) 고소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성폭력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성폭력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 **고소권자는 대리인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 ▲ 고소의 방식

고소권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말로 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3) 고발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함으로써 그 범죄의 기소를 미란다를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이지만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 4) 상담

성폭력 피해 상담소 등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폭력 피해자는 상담지원, 의료지원, 법률지원, 보호시설, 기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지원

피해자와 함께 일상의 어려움, 신고 및 소송 진행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사법제도 외적인 부분의 어려움에 대해 상담하며 가장 좋은 대처방법을 함께 고민합니다.

##### 의료지원

성폭력 피해자의 의료상담, 성폭력 피해의 치료, 임신 여부 검사,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한 태아의 낙태, 성병 감염 여부 검사, 성폭력 피해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 치료, 진단서 발급 비용 등 치료 보호에 소요된 비용 지원  
※ 전담의료기관 전국 332개소/해바라기센터

##### 법률지원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사업을 통해 성폭력 등의 피해와 관련된 민사·가사/형사사건 등에 대한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전국 18개 지부 및 40개 출장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한국성폭력위기센터

##### 쉼터연계

성폭력 피해자는 쉼터(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보호시설은 피해자의 신변이 가해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비공개 운영

##### 기타지원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돌봄서비스 비용을 지원하고 성폭력 피해자 대상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음

## ■ 수사단계

- ① 피해자 진술 및 조사 후 담당 경찰관이 가해자를 불러 조사하고 기타 주변인과 CCTV 등 증거를 수집합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송치되면 담당 검사가 배정되어 추가조사 등을 거친 후 기소/불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② 신변보호조치 요청

-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 외에 신고자, 목격자, 참고인 및 그 친족들도 신변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변보호조치는 정확한 피해내용, 상해내용, 상습성 등을 검토하여 진행되니 피해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제시하면 경찰의 협조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신변보호조치는 112긴급신변보호대상자 등록, 맞춤형 순찰, 신변경호, CCTV 설치, 스마트워치 (위치추적장치)지급, 가해자 경고, 보호시설 연계, 임시숙소 제공 등입니다.

### ③ 전담조사제

-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
-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

### ④ 여성 경찰관에 의한 조사 및 입회

- 성폭력 사건의 여성 범죄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여성 경찰관이 조사 또는 입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범죄피해자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⑤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 수사기관은 다음의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성폭력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성폭력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
- 수사기관은 성폭력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성폭력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 ☑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 ◇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 ◇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 ◇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 ◇ 강간 등 상해·치상죄와 그 미수
-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 ⑥ 피해자 진술 등 촬영보존

- 성폭력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해야 합니다.

### ⑦ 진술조력인<sup>4)</sup>의 참여

- 2013년 12월 19일부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성폭력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성폭력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⑧ 국선변호사 선정

- 성폭력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 ◇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성폭력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집니다.
- 성폭력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sup>4)</sup> 의사소통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을 위해 수사나 재판 등 형사사법절차에 동석하여 증립성을 유지하며 의사소통을 중개 또는 보조하는 전문 인력을 말합니다.

## ■ 재판단계



① 검사가 사건을 기소하면 법원에서는 재판이 시작됩니다.

②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 검색」에서 재판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진행과 관련한 의견서를 검사를 통해서 제출하거나 직접 재판부에 탄원서, 의견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③ 판결문을 비롯한 소송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재판장에게 신청 가능합니다.



## ■ 형사소송관련 법률 용어



- ☒ **고소** 범죄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그 밖의 일정한 자(고소권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 그 범죄를 기소하여 달라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 ☒ **고발**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함으로써 그 범죄의 기소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를 말하지만, 그 주체에 있어서 고소와는 달리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면 고발을 하여야 합니다.
- ☒ **공소시효**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없게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소시효는 각각의 범죄마다 다릅니다.
- ☒ **피의자** 경찰이나 검사 등의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의 의심을 받아 수사를 받고 있는 자로서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자를 말합니다. 피의자가 기소된 후에는 피고인으로 불립니다.
- ☒ **송치** 경찰에서 수사를 완료하고 수사의견을 첨부하여 검찰로 수사기록 등 사건기록을 보내는 것입니다.
- ☒ **기소**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를 공소제기라고도 합니다.
- ☒ **약식기소** 검사가 법원에 재판절차 없이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는 약식기소라고 합니다.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죄질이 비교적 가볍고, 벌금부과만으로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인 경우 약식기소로 처리됩니다.
- ☒ **불기소**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피의자, 고소인, 고발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 **기소유예** 범죄가 인정되지만, 범인의 성격, 연령, 환경, 범죄의 경중,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정상참작의 사유나 반성의 기미가 보이는 경우 처벌을 요구하는 기소를 미루는 결정입니다.





- ☒ **혐의없음**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무혐의)와 피의자의 범죄행위에 대해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부족한 경우(증거불충분)를 말합니다.
- ☒ **죄가안됨**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로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 **공소권 없음**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 후 법령 개정으로 형이 폐지되거나 면제된 경우, 동일사건에 관해 공소가 이미 제기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등 소송조건이 결여되었을 때 내려집니다.
- ☒ **각하** 고소인,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고발장에 의해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 새로운 증거없는 불기소 처분사건인 경우, 고소권자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고소, 고발 후 고소·고발인이 출석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으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각하할 수 있습니다.
- ☒ **기소중지**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수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내려지며 피의자를 발견하게 되면 수사가 재개됩니다.
- ☒ **모두진술** 형사사건 재판에서 검사가 공소장을 읽음으로써 공소제기 요지를 진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 **항고**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등에 항고장을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 ☒ **재정신청** 항고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이 내려진 경우 고소권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을 위해서는 사전에 항고를 거쳐야 합니다.
- ☒ **항소/상고** 항소는 1심 판결에 대해 2심 법원에 불복신청하는 것이며, 상고는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불복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항소/상고는 14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 V.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성폭력 예방과 대책

## ① 문화예술 분야 현실을 고려한 맞춤형 성폭력 예방 교육

---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들의 최근 1년내 성폭력 예방 교육 수강경험은 음악 분야 35.8%, 방송 분야 36.3%, 패션 분야 41.7%, 만화 분야 24.5%로 분야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현실입니다. 또한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다 할지라도, 성폭력 예방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이것은 문화예술 분야의 특성상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고, 직업의 특성을 반영한 사례별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분야별 현실을 충분히 이해하는 성폭력 예방 교육 전문가로부터 문화예술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 사례별 접근법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제시할 수 있는 성폭력 예방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 ② 주변 지지자들과의 소통

---

성폭력 피해율을 살펴보면, 음악 분야 종사자는 18.5%, 방송 분야 30.2%, 패션 분야 14.5%, 만화 분야 34.2%가 피해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에 대해서는 자리를 피하거나 참았다는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나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주변의 지지자들과 이야기하면서 함께 고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편안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고, 나를 비난하지 않고 지지해 줄 사람들은 내가 겪고 있는 상황에서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성폭력 상담기관 등과 같이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기관에서는 관련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은 물론 의료지원에 대한 안내와 법률지원, 보호시설 연계 및 기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안내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 3 다양한 사건 해결방법 고려

성폭력 피해를 봤다면 가해자와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소속공간에서 집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사법적 해결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해자와의 개인적 해결방법은 공론화에 따른 피해자의 부담이 적고, 비교적 빨리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가해자가 가해 사실을 부인할 가능성과 가해자가 피해자의 요구안을 받아들이고 나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공간에서의 집단적 해결방법은 가해자와의 개인적 해결에 비해 가해자에게 좀 더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가해자가 소속집단을 나가버릴 경우 다른 조치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적 해결방법은 법적인 강제력이 있고, 가해자에게 강력한 위협이 될 수 있으나 처벌 대상이 되는 성폭력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사건 해결이 길어질 수 있으며, 법적으로 피해를 입증하는 데 부담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건 해결의 방법과 그에 따른 장점과 단점을 검토하여 사건 해결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 4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변의 노력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 이후 2차 피해로 인한 어려움도 상당합니다. 특히, 문화예술계의 특성상 인적 네트워크가 좁기에 해당 업계에서 원활한 활동이 어려워 질 수 있으며, 언론에 노출될 경우 대중에 의한 2차 피해도 상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변인들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대표자(또는 관리자, 협회 회장)는 성폭력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예방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집단이나 조직 내에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직 내 여론을 모니터링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료 등은 피해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신뢰를 보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사건을 알게 되었을 때 소문을 퍼트리거나 가해자를 옹호하거나 편들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편견이나 평소 행실, 업무 능력, 성격 등과 관련지어 사건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사건에 대해 말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설령 걱정이 되더라도 구체적으로 자세히 묻거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 5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성폭력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는 당연히 울어야 하고, 당당할 수 없고, 유약하다는 선입견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피해자는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지인이 피해 사실을 알게 될까봐 또는 피해 촬영물을 볼까 봐 두려워하기도 하고 절망감을 느낄 수도 있으며, 가해자를 원망하거나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피해를 헤쳐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피해 사실을 전혀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실의 피해자는 울 수도 있지만, 웃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 □ 성폭력은 가해자의 잘못입니다

- ◇ 상대방과 나는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 ◇ 상대방의 침묵이 곧 동의는 아닙니다.
- ◇ 상대방은 나의 성적 욕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 ◇ 나의 사회적 지위나 명예, 권력이 상대방에게는 강요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 ☑ 피해자는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 ◇ 피해자는 울지 않고, 웃을 수 있습니다.
- ◇ 피해자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 ◇ 피해자는 수치심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 ◇ 피해자는 피해에서 회복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 피해자는 강인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 ◇ 피해자는 이성적이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예술인성폭력피해 신고상담센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예술인성폭력 피해 신고상담센터는 성희롱·성폭력피해로 고충을 겪고 있는 예술인과 예비 예술인을 보호하고 지원합니다.

**전화** 02-3668-0266,

02-1670-5678(내선번호 3번)

**온라인 상담** [withu@kawf.kr](mailto:withu@kawf.kr)/ (비공개 게시판)

**홈페이지** <http://www.kawfarist.kr>

## 콘텐츠성평등센터<보라>

콘텐츠성평등센터 보라는 게임, 방송, 음악, 패션,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콘텐츠 산업계 성폭력 예방 및 근절과 피해자의 신고, 접수부터 상담과 치유까지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콘텐츠 산업계 성평등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합니다.

**전화** 1670-5678(내선번호 1번)

**온라인 상담** [bora@kocca.kr](mailto:bora@kocca.kr)

## 대한체육회 : 스포츠인권센터

체육계 (성)폭력 예방 및 체육인(선수 및 지도자) 인권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전화** 02-418-1119

**온라인 상담** [sports119@sport.or.kr](mailto:sports119@sport.or.kr)

**홈페이지** <http://sports-in.sports.or.kr/>

##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심리치료, 임시보호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비영리기관으로 의료기관 및 피해자 보호시설연계, 가해자에 대한 고발 등의 법률지원을 합니다(17개 시도, 171개소).

**전화** 1366(지역번호 + 1366)

**온라인 상담** '카카오톡 상담 가능(카카오톡에서 'women1366' 검색, 여성폭력 사이버상담(women1366)과 친구맺기 후 1:1 채팅 진행

**홈페이지** [www.women1366.kr](http://www.women1366.kr)

## 해바라기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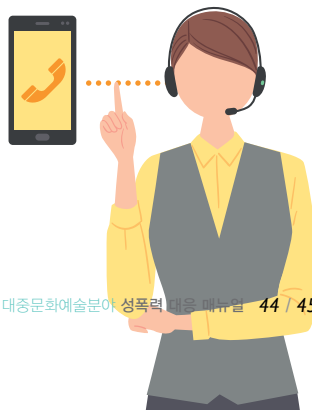
### (여성폭력 피해자 ONE-STOP지원센터)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자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심리치료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노력합니다(2018년 기준 39개소 운영 중)

**전화** 02-3672-0365

(서울해바라기센터 대표번호)

**온라인 상담** <http://www.help0365.or.kr/>



##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상담 및 유출 촬영물 삭제, 법률·의료 등 연계지원을 제공합니다.  
모든 내용은 비공개로 게시되어 비밀이 보장됩니다.

**전화** 02-735-8994

**홈페이지** <https://www.women1366.kr/stopds/>

---

### 전국 성폭력 피해 전담의료기관

성폭력 피해자 등의 치료를 위해 국립, 공립병원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보건 상담 및 지도,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지원합니다(2018년 기준 332개소 운영 중).

---

### 전국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 지원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을 잘 모르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화** 132

**홈페이지**

<https://www.klac.or.kr/html/view.do?code=1069>

---

###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민간 사업장, 학교, 군대, 자원봉사단체, 친목단체 등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성희롱 사건을 조사하고 구제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전화** 1331

**홈페이지** <https://www.humanrights.go.kr>

---

### 여성가족부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기관 등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한 신고와 상담을 담당합니다.

**전화** 02-735-7544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msv/metooReport.do>

---

### 고용노동부

민간 사업장에서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구제 업무를 담당합니다.

**전화** 1350

**홈페이지** <http://www.moel.go.kr/index.do>



---

##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 사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상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성폭력 관련 법률 제·개정 의견제언과 대중교육 등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 02-338-5801

**홈페이지** <http://www.sisters.or.kr>

---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여성폭력 예방과 근절,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 02-735-7544

**홈페이지** <http://www.stop.or.kr>

---

##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부터 여성인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모든 폭력에 대해서 상담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 02-2263-6465

**홈페이지**

<http://www.hotline.or.kr>(\*지역별 센터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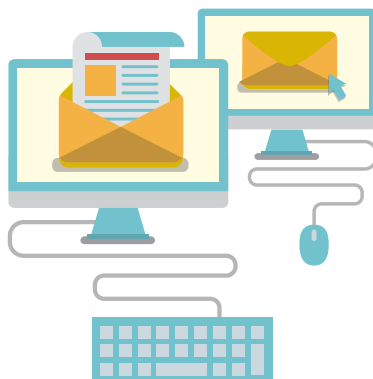
---

##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 신고 및 상담뿐 만 아니라 사회의 인식개선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화** 02-335-1858

**홈페이지** [www.womenlink.or.kr/](http://www.womenlink.or.kr/)







## 감수하신 분

김혜정 : (사)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홍수경 : 노무사



## 도움주신 분

남은주 : 대구여성회 상임대표

윤은희 : 인구보건협회대구·경북지회 성폭력 상담소 소장

윤혜영 : 계명대학교 심리학과 교수/학생상담센터장

이동민 : 이동민 법률 사무소 대표 변호사

최은철 : 최은철 법률 사무소 대표 변호사

최주희 : 최주희 법률 사무소 대표 변호사



## 연구진

윤우석 :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창훈 : 한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강지현 : 울산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박영주 : 대구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김현주 : 대경대학교 교수

홍승진 : 배우

김호중 : 가수



## 대중문화예술분야 성폭력 대응 매뉴얼\_만화

---

발 행 일 : 2019년 6월

발 행 인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발 행 처 :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r](http://www.mcst.go.kr))

연구수행기관 :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남재열)

발간등록번호 : 11-1371000-000936-01

ISBN : 979-11-6357-080-6 (94300)

본 매뉴얼은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결과입니다.

매뉴얼의 내용은 전적으로 연구진의 의견이며,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

성폭력이 무엇인가요?

만화 분야 성폭력 현황이 어떠할까요?

만화 분야 성폭력 피해, 무엇이 고민인가요?

성폭력 피해, 대처방법은 무엇인가요?

성폭력 예방과 대책,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비매품/무료

94300



9 791163 570806

ISBN 979-11-6357-080-6

ISBN 979-11-6357-076-9 (세트)



문화체육관광부